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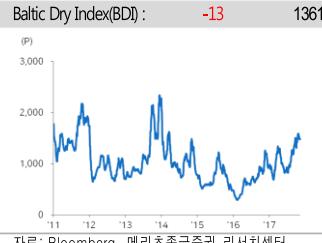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414.8	21.3	148,500	0.7	-3.3	-8.3	7.3	53.5	120.9	0.8	0.8	1.3	0.6
현대로보티스	6,205.2	20.2	381,000	0.8	-16.9	-18.0	N/A	4.2	4.7	0.8	0.7	19.4	15.8
현대엘에트릭	915.8	6.6	229,500	1.8	-8.4	-16.7	N/A	11.2	7.6	1.1	0.9	9.5	13.1
현대건설기계	1,549.5	10.1	165,000	0.6	-14.9	-2.0	N/A	5.1	3.9	0.7	0.6	13.1	15.8
삼성중공업	4,797.0	19.4	12,300	2.1	3.8	17.1	33.0	62.4	133.1	0.8	0.8	1.2	0.6
대우조선해양	1,927.3	3.4	18,350	-0.5	N/A	N/A	-59.0	1.1	10.3	0.5	0.5	63.6	4.9
현대미포조선	1,888.0	13.3	94,400	0.5	-7.0	-6.1	40.5	9.3	32.0	0.8	0.7	8.9	2.4
한진중공업	390.3	4.1	3,680	0.7	-8.0	-11.5	9.4	-11.5	8.3	0.4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72.0	31.6	55,700	-0.9	7.1	7.5	-3.0	10.3	9.8	1.5	1.4	15.9	14.6
두산밥캣	3,388.4	24.3	33,800	0.1	-11.5	-9.5	-5.7	14.8	13.6	0.9	0.9	6.6	6.7
현대로템	1,644.8	28.2	19,350	-1.0	9.6	7.2	6.6	36.7	24.8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61.4	47.3	26,550	-6.7	24.1	17.7	25.8	13.9	12.3	1.1	1.1	8.5	9.0
성광밴드	274.6	15.1	9,600	-1.8	4.9	0.6	8.4	31.0	17.9	0.6	0.6	1.9	3.2
태광	279.6	16.8	10,550	0.0	11.3	11.6	27.3	39.5	21.8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751.3	8.3	16,450	-2.1	-10.6	-9.9	-39.5	-75.0	104	0.6	0.6	-0.5	5.2
두산인프라코어	1,857.1	12.2	8,950	-0.9	-3.2	9.0	1.5	9.3	7.9	0.9	0.8	9.6	10.4
두산엔진	312.4	5.3	4,495	5.9	17.2	13.1	36.8	32.1	31.8	0.6	0.6	1.8	1.8
한국항공우주산업	5,185.7	18.8	53,200	5.3	11.5	24.2	-20.6	-136.9	25.9	3.9	3.5	-2.0	13.7
한화테크윈	1,946.2	20.7	37,000	2.1	10.9	-6.3	-14.8	28.2	18.3	0.8	0.8	2.9	4.4
LIG넥스원	1,262.8	15.1	57,400	-0.2	-23.0	-28.0	-28.7	22.0	13.7	1.9	1.7	8.9	13.0
태웅	379.1	1.8	18,950	-1.0	11.8	-5.0	-15.6	49.0	16.8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32.9	3.3	4,925	-0.3	2.0	-6.9	-14.3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56.7	16.6	5,840	-0.3	-0.8	-27	-3.5	19.6	26.4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Quartet makes Statoil's shortlist for VLGC tender**

노르웨이 Statoil은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1~2척의 초대형가스운반선(VLGC)를 확보하기 위해 4곳의 입찰후보를 선정함. 4곳은 노르웨이 Solveng, 미국 Dorian LPG, 싱가폴 Petredec, 한국 Polaris Shipping으로 알려짐. 입찰자는 19년 인도로 5년 용선계약을 맺을 예정, 선가는 7,300만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Zodiac Maritime homes in on boxship newbuildings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Zodiac Maritime은 현대중공업에 1.1만TEU급 컨테이너선 5척 밸주를 계획한다고 알려짐. 각 선박은 9천만달러 수준이고, Zodiac은 20년 환경규제에 맞춰 Scrubber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짐. 또 Evergreen도 1.4만TEU급 컨테이너선 6척의 밸주처를 찾는다고 알려짐. (TradeWinds)

Boiler incident set to delay delivery of Gazprom FSRU

러시아 Gazprom Flot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고 있는 17.4만CBM급 FSRU가 이번 달 인도예정이었으나, 재기화장치 보일러의 이상으로 인도가 지연됐다고 알려짐. Gazprom은 보일러를 수리하기보다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FSRU의 인도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연�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Lion City 'roars' for offshore work

싱가폴 Sembcorp이 Statoil이 밸주한 Johan Castberg를 수주한 점이 한국이 지배하던 해양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옮겨가는 신호라고 보도됨. 싱가폴 Sembcorp과 Keppel FELS는 Rig와 해양지원선에 주력했지만, 낮은 인건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FPSO 수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알려짐. (Upstream)

BP seeks 2020-compliant VLCCs for time-charter

오일메이저 BP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최대 2척의 VLCC를 용선할 계획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P가 용선계약 3년에 2개의 1년 연장 옵션을 찾고 있다고 알려짐. 또 이번 용선계약은 테스트 케이스로 언급함. Dual-Fuel 추진방식은 VLCC 신조 비용을 25% 증가시킨다고 알려짐. (TradeWinds)

Yang Ming, 신조선 발주계획 부인

대만선사 Yang Ming은 최근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함.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발주는 부인하면서도 용선 선박과 노후선 대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알려짐. Yang Ming은 금년 말까지 10억주의 신주 발행을 통해 90~110억대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선박뉴스)

日 조선 수주잔고 22개월만에 증가 "불황 탈출구 보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선박수출조합이 발표한 10월 수출선박 계약실적을 보면 수주잔고가 22개월 만에 전월 대비 증가로 돌아섰다고 알려짐. 10월 선박수주 적수는 22척으로, 모두 벌크선으로 알려짐. 또 한국과 중국이 정부에 의한 대규모 금융지원 때문에 일본이 수주에서 밀린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Lion City 'roars' for offshore work

싱가폴 Sembcorp이 Statoil이 밸주한 Johan Castberg를 수주한 점이 한국이 지배하던 해양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옮겨가는 신호라고 보도됨. 싱가폴 Sembcorp과 Keppel FELS는 Rig와 해양지원선에 주력했지만, 낮은 인건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FPSO 수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알려짐.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7년 11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